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

이혜경*, 김리아, 김재은, 이유라, 이지민, 한희선, 황현경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Converged Factors Affecting Learning Flow in Nursing College Students

Hyea-Kyung Lee*, Li-A Kim, Jae-Eun Kim, Yu-Ra Lee,
Ji-Min Lee, Hee-Sun Han, Hyeon-Kyeong Hwang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충청북도에 소재한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는 기술통계와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Pearson correlation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과의 관계를 보면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r=568, p<.001$),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r=.412, p<.001$)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셀프리더십으로 33.0%($\beta=.501, p<.001$)의 설명력이 있었다. 이처럼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증진을 도모하여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학습몰입,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verged factors affecting learning flow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tudy conducted survey on 200 nursing students attending a college in Chungcheongbuk-do. The study processed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analysis. A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ocial support and learning flow, the higher self-leadership($r=568, p<.001$), and social support ($r=.412, p<.001$) led to higher learning flow of the study subject. The influential variables of learning flow was self-leadership with 33.0% of explanation power($\beta=.501, p<.001$). Likewise, the study confirmed that self-leadership is a very significant variable of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etic grounds, there is a need to seek measures to improve learning flow by improv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College students,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Learning Flow,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교육이 학습 성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간

호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한 성과 중심 교육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3주기 인증평가 개정 방향 또한 성과기반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강화되었다. 간

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간호교육에서 성과 중심의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학습활동이 요구되면서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학습몰입’의 개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다양한 학업적 상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즐거움을 느껴 학습 과정에만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를 말한다[2,3]. 이런 학습몰입은 원만한 학업 수행과 성적 향상 및 학습지 속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4]. 학생들의 학업수행과 성적 향상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학습몰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관리능력이 필요하다[5].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이 주어질 때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끄는 자율적인 힘이며[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자아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을 향상시키고[7], 자기주도 학습준비와[8],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은 문제 중심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로 사용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셀프리더십 향상이 필요하다[10]. 현재 간호교육은 국가고시라는 큰 과제 하에 합격에 초점한 지식축약적인 학습으로 학생들의 자아효능감 향상 및 대학생활만족 향상과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셀프리더십 향상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11]. 그리고 자아효능감은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12], 건강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셀프리더십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 핵심역량 중 ‘간호목표달성을 위한 리더십 능력’과 같은 리더십 관련 항목이 제시되었다[13]. 이는 졸업 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리더십 능력이 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 중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학습몰입에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지만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학업적응의 정도가 높았으며[14], 임상실습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5]. 또한 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고 취업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매개효과를 나타내어[16], 사회적지지가 셀프리더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사회적지지는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셀프리더십은 자율적인 자기통제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1], 학습수업만족도 등이 있었고[17], 긍정심리자본은 동기관련 변인으로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몰입은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18-20]. 이처럼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 전공 및 수업만족도 등이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사회적지지 또한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지가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습몰입에 중요한 변수로 제시된 셀프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변수로 제시된 사회적 지지를 원인 변수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 학습몰입의 관계를 규명하고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전략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에 대한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정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충청북도에 소재한 J대학교 간호학과 전학생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개별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밝혔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예측 요인의 수 7개와 중간 정도 효과 크기 .15, 유의수준은 0.5, 검정력은 .95를 기준으로 153명이 필요하였다. 간호학과 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조사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응답이 있는 자료 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7부를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 도구는 Manz가 개발하고 김한성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1,22]. 문항은 자기 기대, 리허설, 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총 6가지 요인으로 나뉘며 총 18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8점부터 최고 90점까지이고, Likert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한성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이었고[2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였다.

2.3.2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도구는 박지원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김연수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3,24]. 이 척도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총 4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뉘며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연수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였으며[24],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5였다.

2.3.3 학습몰입

본 연구에서는 석임복이 개발한 도구를 이지혜가 수정, 보완한 학습몰입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5,26]. 문항은 인지적 몰입의 4개 하위요인인 도전과 능력의 조화, 행동과 의식의 통합,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피드백과 정적 몰입의 5개 하위요인인 통제감, 과제에 대한 집중, 자의식의 상실, 시간감각의 왜곡, 자기목적적 경험으로 총 9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35점부터 최고 175점까지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지혜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였으며[26],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 .93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의 차이는 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확인하였으며, Scheffé 사후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하여 설문지에 연구자의 이름이나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정보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고,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

며,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및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0.7%, 여자는 89.3%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은 31.5%, 3학년은 16.8%, 4학년은 15.2%였다. 생활 형태는 부모님과 분리생활 중인 대상자가 81.2%, 부모님과 생활 중인 대상자는 18.8%로 대다수가 부모님과 분리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순위를 보면 첫째가 53.8%로 가장 많았고 둘째는 40.1%, 셋째 이상은 6.1%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7)

Characteristics	Division	n(%)
Gender	Male	21(10.7)
	Female	176(89.3)
Grade	Freshman	72(36.5)
	Sophomore	62(31.5)
	Junior	33(16.8)
	Senior	30(15.2)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37(18.8)
	Separation from Parents	160(81.2)
Birth Order	First	106(53.8)
	Second	79(40.1)
	Third more than	12(6.1)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3.51점(1~5)이었고,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자기보상이 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하위요인은 건설적 사고로 3.16점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3.81점(1~5)이었으며, 가장 높은 하위요인으로는 물질적지지가 3.8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적지지가 3.77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습몰입의 평균은 3.19점(1~5)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명확한 목표가 3.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기목적적 경험이 2.83점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2. The Score of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and Learning Flow

Characteristics	Sub-factor	M±SD	Range
Self Leadership	Self-expectation	3.49±.785	1~5
	Rehearsal	3.54±.799	
	Goal Setting	3.57±.710	
	Self-Compensation	4.00±.779	
	Self-Criticism	3.30±.897	
	Constructive Thinking	3.16±.763	
	Total	3.51±.554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3.80±.561	1~5
	Informative Support	3.77±.603	
	Physical Support	3.85±.596	
	Evaluative Support	3.80±.578	
	Total	3.81±.536	
Learning Flow	Harmony between Challenge and ability	2.96±.665	1~5
	Integration of Behavior and Consciousness	3.31±.739	
	Definite Goal	3.57±.664	
	Specific Goal	3.53±.621	
	Control	3.12±.807	
	Concentration on the Assignment	3.44±.640	
	Loss of Self-Conscious	3.17±.680	
	Distortion of Sense of Time	3.07±.829	
	Self-directed Experience	2.83±.744	
	Total	3.19±.519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성별($t=-1.414, p=.159$), 생활형태($F=2.975, p=.487$), 출생순위($F=1.879, p=.15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년($F=2.975, p=.033$)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년의 학습몰입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2학년의 학습몰입 정도가 가장 낮았고, 사후검정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3. Difference of Learning Flow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Division	M±SD	t or F	p
Gender	Male	3.04±.476	-1.414	.159
	Female	3.21±.523		
Grade	Freshman	3.30±.506	2.975	.033*
	Sophomore	3.05±.490		
	Junior	3.16±.570		
	Senior	3.28±.502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3.14±.345	-6.96	.487

	Separation from Parents	3.21±.552		
Birth Order	First	3.26±.523	1.879	.156
	Second	3.13±.524		
	Third or more	3.03±.399		

* p<.05

3.4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과의 관계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과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r=.56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몰입과 사회적지지($r=.412,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Self Leadership, Social Support and Learning Flow

	Self Leadership r(p)	Social Support r(p)	Learning Flow r(p)
Self Leadership	1		
Social Support	.602* ($<.001$)	1	
Learning Flow	.568* ($<.001$)	.412* ($<.001$)	1

3.5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5와 같다.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학년과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의 총 3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자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셀프리더십 31.9%($\beta=.501, p<.001$), 학년 1.1%($\beta=-.122, p=.038$)로 총 33%의 설명력이 있었다. 따라서 셀프리더십과 학년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총 33.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635~.996으로 0.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4~1.575로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 공선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55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Learning Flow

	B	SE	β	t	p	R ²	Adj R ²	F	p
Constant	1.236	.236		5.247	<.001			33.903	<.001*
Self Leadership	.461	.069	.492	6.730	<.001	32.3	31.9		
Grade	-.131	.063	-.122	-2.088	.038	33.7	33.0		
Social Support	.111	.071	.115	1.575	.117				

* p<.05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학습몰입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학습몰입에 미치는 융합적인 요인을 확인하여 향후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3.51점(1~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원효진의 연구에서 3.38점으로 나타났고 간호학과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선화와 박상연의 연구에서는 3.49점[1,27], 간호대학생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선영과 김윤영의 연구에서 3.2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8], 3년제 간호학과 학생들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민아의 연구에서 3.56점[10], 3년제 간호학과 학생들 중 임상실습을 경험한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종울과 조미혜의 연구에서는 3.74점[28], 임상실습을 1학기 이상 경험한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양남영과 문선영의 연구에서는 3.72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29].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의 비중이 68%를 차지하였고, 김선화와 박상연의 연구에서는 1, 2학년의 비중이 55.8%[1], 이선영과 김윤영의 연구에서도 1, 2학년의 비중이 51.3%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임상실습 경험한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8]. 이처럼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비평적 사고를 반영한 보고서 작성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 및 전문

적인 간호사 활동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 실습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및 융합역량을 향상시킨다[30].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는 3.81점(1~5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재우와 문영숙의 연구에서 3.93점(1~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31],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미정과 전원희의 연구에서도 4.3점(1~5점)[32],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제문희의 연구에서도 4.11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33]. 이 같은 결과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하고 고학년이 될수록 자기주도적인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셀프리더십이 증진되고, 교우관계 또한 돈독해져 사회적지지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은 3.19점(1~5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유미의 연구에서 2.85점(1~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학습몰입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고[20], 김선화와 박상연의 연구에서는 3.34점(1~5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대[1]. 학습몰입의 정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1학년의 학습몰입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2학년의 학습몰입 정도가 가장 낮았고, 사후검정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이숙정의 연구에서 1학년의 학습몰입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4학년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이우성의 연구에서도 1학년의 학습몰입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3학년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18,34].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고학년일수록 학습몰입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본 연구결과는 1학년의 학습몰입 정도가 매우 높았고 1학년을 제외한 학년은 모두 고학년이 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보조연구원이 1학년으로 수업과 연계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문조사에 민감해지는 ‘시험효과’가 작용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2학년의 경우 학습몰입의 정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학과에 대한 정체성 및 학습 지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3학년 이상 대상자의 경우 실습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과 과정상 피로도 증가로 인한 요인

으로 보인다.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학년을 포함한 특성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및 학습몰입과의 관계를 보면, 학습몰입과 셀프리더십($r=0.568,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습몰입과 사회적지지($r=0.412,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 선행연구와 셀프리더십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1,20,32]. 따라서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의 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교의 자율적인 교육방식과 이론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간호교육과정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셀프리더십과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와 학습몰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보였으나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사회적지지와 학습몰입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셀프리더십의 설명력이 31.9%를 보여 학습몰입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선화와 박상연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함께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유미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8%로 나타났대[20]. 위와 같이 셀프리더십이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년 변수가 학습몰입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1.1%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김유미의 연구에서 학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20], 사후 검정 결과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2학년이 3학년보다 학습몰입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김선화와 박상연의 연구에서는 학년 간 학습몰입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며[1],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처럼 학년에 따른 학습몰입의 영향요인 분석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저학년의 학습몰입 정도가 고학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3학년보다 시작되는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학습 시간 부족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증진을 도모하고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피로 등의 조절을 통해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학습 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대한 설명력은 셀프리더십 31.9%($\beta=.501$, $p<.001$), 학년 1.1%($\beta=-.122$, $p=.038$)로 총 3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지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지지가 대학생활 적응, 학업 적응 및 셀프리더십을 증진시켜 학습몰입 향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나[15,16], 간호대학생의 사회적지지와 학습몰입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습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의 개발과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며, 학습몰입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예측요인의 모색도 필요하다. 또한 연구 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특히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정도를 향상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 H. Kim & S. Y. Park. (2014).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557-1565.
DOI : 10.5762/KAIS.2014.15.3.1557
- [2] S. I. Park & Y. K. Kim. (2006). An inquiry on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flow factor, flow level, achievement under on-lin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4(1), 93-115.
- [3] J. H. Lee. (2010).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8(2), 67-92.
- [4] J. C. Pery. (2008). School Engagement Among Urban Youth of Color: Criterion Pattern Effects of Vocational Exploration and Racial Ident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4(4), 397-422.
DOI : 10.1177/0894845308316293
- [5] J. S. Lee.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cognition and Learning flow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6(2), 277-295.
DOI : 10.24211/tjkte.2009.26.2.277
- [6] C. C. Manz & H. P. Sims. (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4), 18-35.
DOI : 10.1016/0090-2616(91)90051-A
- [7] Y. S. Lee, S. H. Park & J. K. Kim. (2014).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229-240.
DOI : 10.5392/JKCA.2014.14.06.229
- [8] S. Y. Lee & Y. Y. Kim. (2016).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309-318.
DOI : 10.14400/JDC.2016.14.3.309
- [9] K. H. Kim & E. H. Hwang. (2016).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7(2), 436-445.
DOI : 10.5762/KAIS.2016.17.2.436
- [10] M. A. Park. (2009).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11] S. H. Oh, J. J. Sun & S. H. Jang. (2017). A Study of

-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Global Competences and Their Multiple Intelligenc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3-26.
- [12] M. S. Kim & S. Y. Yun. (2017). Effects of Eating Habits and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2), 111-117.
- [1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Business Purpos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http://kabone.or.kr>
- [14] G. W. Lee, I. O. Moon & S. K. Park.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4(2), 15-27.
- [15] Y. K. Yang, K. S. Han, M. H. Bae & S. H. Yang. (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1), 23-34.
DOI : 10.17547/kjsr.2014.22.1.23
- [16] Y. J. Kim & C. S. Youn.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leadership upon Job-seeking Str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Leadership*, 3(1).
- [17] M. S. Kim & S. Y. Yun. (2015). Factors influencing flow state of cooperative learning among nursing students: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397-403.
DOI : 10.14400/JDC.2015.13.10.397
- [18] S. J. Lee. (2011).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5(2), 235-253.
- [19] M. K. Hong. (2015). The Impa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on the Learning Flow: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9(6), 1-23.
- [20] Y. M. Kim. (2016).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12-122.
DOI : 10.5762/KAIS.2016.17.7.112
- [21] C. C. Manz.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DOI : 10.2307/2588312
- [22] H. S. Kim. (2002). *Middle school teacher job satisf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23] J. W. Park.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4] Y. S. Kim. (1995).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adults with mental disor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5] I. B. Seok. (2007). *The Learning Flow Study: Scale, Character, Condition, Invol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26] J. H. Lee. (200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27] H. J. Won. (2015).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9(1), 123-131.
DOI : 10.12811/kshsm.2015.9.1.123
- [28] J. Y. Lee & M. H. Cho. (2012). Correlations Betwee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in a Diploma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Higher Voc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13(3-4), 241-253.
- [29] N. Y. Yang & S. Y. Moon.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 216-225.
DOI : 10.11111/jkana.2011.17.2.216
- [30] Y. H. Song. (2017). Comparing Levels of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Convergence Competency according to Their Field Experienc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3), 147-152.
DOI : 10.22156/cs4smb.2017.7.3.147
- [31] J. W. Oh & Y. S. Moon. (2014). A Predictive Model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391-403.
DOI : 10.14400/JDC.2014.10.391
- [32] M. J. Park & W. H. Jun. (2016).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Hop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1), 34-41.

DOI : 10.5977/jkasne.2016.22.1.34

- [33] M. H. Je. (2012). *Social Support, Self-Esteem of Major effect on Empowerment of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34] W. S. Lee. (2012).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of Learning Flow, Campus Life Adaption and Career In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Daejeon.

저 자 소 개

이 혜 경(Hyea-Kyung Lee) [정회원]



- 2012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7월 ~ 현재 :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리더십, 건강, 운동, 통증, 융합

김 리 아(Li-A Kim) [학생회원]



- 2017년 9월 ~ 현재 :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간호학 학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리더십, 건강, 운동

김 재 은(Jae-Eun Kim) [학생회원]



- 2017년 9월 ~ 현재 :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간호학 학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리더십, 건강, 운동

이 유 라(Yu-Ra Lee) [학생회원]



- 2017년 9월 ~ 현재 :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간호학 학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리더십, 건강, 운동

이 지 민(Ji-Min Lee) [학생회원]



- 2017년 9월 ~ 현재 :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간호학 학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리더십, 건강, 운동

한 희 선(Hee-Sun Han) [학생회원]



- 2017년 9월 ~ 현재 :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간호학 학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리더십, 건강, 운동

황 현 경(Hyeon-kyeong Hwang) [학생회원]



- 2017년 9월 ~ 현재 :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간호학 학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리더십, 건강, 운동